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(2.26.)

- 지금부터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[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·업종 집중점검방안]

- 국민 누구라도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 등 민생물가를 가지고 담합·불공정 행위 등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.
 - 앞으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것은 혁신,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 - 잡초를 솟아내는 이유는 꽃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, 정원 전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.
 -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.
 - 정부는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편법·탈법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.
- 정부는 민생밀접품목 실태조사와 현장단속, 먹거리 담합의혹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전방위적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 - 앞으로도 돼지고기, 계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선별하고, 가격상승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 - 특히, 설탕·밀가루 등 최근 가격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.

- 소비자단체와 부처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창구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오늘은 ‘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’과 ‘교복가격·학원비의 개선·관리강화방안’을 논의합니다.

[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]

- 먼저, ‘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’입니다.
-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*되었습니다.

* (반출지연) 23개 축산물 수입업체 적발, 185억원 관세 추징(‘24~’26년)
(수입신고 지연) 설탕·커피생두·고등어 등 23개 품목, 가산세 3.8억원 부과(‘25~’26년)

- 관세청은 금년 2월에만도 수입신고를 고의로 지연시킨 커피 등 6개 품목, 11개 업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였고,
-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한(15일 이내)을 위반한 설탕 수입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합니다.

- ① 우선,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‘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’으로 지정하겠습니다.

- 집중관리 품목은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, 의무위반시,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, 관세도 추징하겠습니다.
- 또한,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,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.

- ② 할당관세 품목 수입·유통·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,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.

- ③ 농식품부·관세청 등 관계부처간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 및
취소정보,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정보 등 정보공유를 대폭 강화하고
- 품목별 판매가격과 유통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,
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
집중 관세조사 및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습니다.

[교복가격·학원비의 개선·관리강화방안]

- 두 번째, ‘교복가격·학원비의 개선·관리강화방안’입니다.
- 3월 새 학기를 앞두고, 학생과 학부모께 부담이 되는 교복
가격과 학원비를 점검하고,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전수조사를 통해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,
지원방식을 현물지원에서 현금·바우처지원으로 바꾸고,
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 등으로 전환하겠습니다.
- 학원비는 초과징수와 편법인상 등을 집중점검하고,
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겠습니다.

[유가연동보조금 연장]

- 마지막으로,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
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,
경유·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 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.
-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「불공정거래 점검 추진상황」을
교육부장관께서 「교복가격·학원비의 개선·관리강화방안」에
대해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. (공정위, 교육부 모두발언)
-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